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셜록 홈즈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캐릭터다. 그리고 영화 '셜록 홈즈 - 그림자 게임'은 셜록 홈즈의 캐릭터에 대한 할리우드적 해석이라고 할 만 하다.

기존의 홈즈를 강력한 액션으로 치장하여 보다 영웅적인 모습으로 재창조했는데, 이 시리즈 영화의 인기를 보면, 소설속에서 홈즈가 살았던 영국 베커가 221B번지가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관광 명소가 되어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도 않다.

이 영화를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홈즈가 속삭 모리아티 교수에게 잡혀 고문받던 장면과 이 장면에서 사용된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를 잊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는 송어의 시구절을 인용하여 앞으로 홈즈의 친구인 왓슨도 송어처럼 결국

에 물을 흐린 다음 송어를 낚는다. 그것을 본 화자는 어부의 손에 걸려든 송어를 예처롭고 가엾게 생각하며 결국 속임수의 세상으로 끝난다고 한탄한다.

슈베르트는 그로부터 2년 뒤, 성악가 친구와 함께 연주여행을 다녀는데, 북오스트리아 산간지방 '슈타일'이란 곳에서 '파울가르트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당시에 가곡 송어에 대해 이 선율을 차라리 연주곡으로 보다 규모있게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듣는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피아노 오중주 '송어'다. 슈베르트는 이 가곡의 선율을 고스란히 오중주곡 4악장에 집어넣었고, 오늘날 이 피아노 오중주는 불멸의 실내악 가운데 한곡으로 손꼽히고 있다.

'송어' 오중주 연주에서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음반이 피아니스트 외르크 데무스와 빈필사중주단의 레코딩이다. 수많은

'셜록 홈즈-그림자 게임' 중 슈베르트 '송어'

안타깝구나! 속임수 세상!

자신의 낚시바늘에 걸려들게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클래식 음악을 이용하여 장면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것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복선까지 만들어내는 장면. 원곡 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특히 송어의 마지막 문구인 '안타깝구나! 속임수의 세상!'이란 문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모리아티의 속임수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1817년경 슈바르트의 시 '송어(Die Forelle)'에 곡을 붙여 가곡을 만들었다. 송어 시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겨울처럼 맑은 사냇물 속에 송어가 놀고있고, 한 어부가 송어를 잡기 위해 낚시를 드리우지만 잘 잡히지 않자, 물이 너무 맑아서라고 생각한 끝

은 명인 피아니스트들이 협연한 음반을 보더라도 이 음반이 늘 가슴깊이 외닿는 이유는 바로 '조화' 때문이다. 피셔 디스 카우 등과 함께 많은 가곡집의 반주도 맡아왔던 데무스의 피아노는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다른 현악기들과의 조화 속에서 평온하게 노래한다. 피아노의 존재감보다는 음악으로서의 화합을 중시하는 데무스의 연주태도는 결국 이 음반을 오랜 세월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피조물로 완성시켰다.

데무스는 후일 다시 이 곡을 녹음했는데, 현대 피아노를 버리고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시대악기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한다. 하르모니아 문디에서 발매된 이 신녹음 또한 자신을 버리고 음악을 택한 늙은 명인의 깊은 성찰과 해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차이코프스키 선율을 깨우다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이천공연 리뷰

주역들 빛나는 연기, 군무팀 완벽한 호흡 '최고의 찬사'

내달 6~7일 광주공연... 김지영·이동훈커플 6일 무대에

조명이 모두 꺼지자 객석도 숨을 죽였다. 암흑 속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기를 몇분. 가립막이 열리며 시작된 화려한 궁정 장면부터 관객들은 작품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로 멋지게 등장하는 지그프리트 왕자의 도약에 관객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졌고, 가립막 백조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작은 탄성이 일었다.

지난 16일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이 열린 경기 이전 아틀란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의 멋진 연기가 펼쳐질 때마다 '브라보' 소리가 객석을 메웠고 공연 후에는 열띤 환호와 기

립박수도 쏟아졌다. 이날 공연을 펼친 국립발레단은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한국의 대표적 발레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제된 세트와 조명, 화려한 의상, 출연진의 연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최상의 무대를 선보였다.

무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자주 변환이 되지는 않았지만 안정감 있는 격조 높은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파티가 열리는 궁정 장면과 호숫가 등 크게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된 무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화려하고 품격 있는 의상 역시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또 백조들의 춤을 돋보이게 하는 푸르틴 조명 역시 환상적인

느낌을 끌어올리며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훌륭한 인력풀을 자랑하듯, 단원들의 테크닉과 연기는 작품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주역 김지영은 완벽했다. 첫 등장부터 관객들을 사로잡은 그녀는 화려한 테크닉과 함께 '온몸'으로 슬픔과 기쁨, 환희와 좌절을 이야기했다. 그 느낌들은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그대로 묻어났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로 활동했고,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로마극립오페라발레단의 초청을 받아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던 스타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됐다.

지그프리트 왕자 역의 이동훈 역시 뛰어난 테크닉과 다양한 표정 연기가 눈길을 끌었으며 탁월한 신체 조건으로 무대 위를 완벽하게 장악한 악마역의 외국 발레리노 역

시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추는 남성 2인무는 강한 파워와 흡입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그밖에 뮤지컬 '캣츠'의 마법사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어릿광대 역의 발레리노는 극의 분위기를 띄우고 수줍바퀴 회전의 뛰어난 테크닉을 선보였으며 2막에 등장하는 솔리스트들 역시 완성도 높은 무대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주역들의 연기가 더욱 빛나보일 수 있었던 건 백조 등을 연기한 군무팀의 완벽한 앙상블 덕이었다. 정중동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준 군무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백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광주 공연은 오는 7월 6일(오후 8시), 7일(오후 5시) 두차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이날 출연했던 김지영·이동훈 커플은 오는 6일 무대에 오른다. 티켓 가격 8만 8000원 ~ 2만 2000원. 문의 062-220-0541, 1544-1555.

/경기이천=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장난 어린이가 자전거 기증해주세요"

비엔날레 참여작가 작품소재 못구해 발동등

'버려진 어린이용 자전거 찾습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9회 비엔날레 개막(9월 7일)을 80여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할 어린이용 자전거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5일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에 활용될 방치되거나 버려진 어린이용 자전거 100대를 찾는다. 이색 모

집 공고를 냈다. 모집품은 어린이용 두발, 세발 자전거, 헬멧 등이며 기증자에게는 작가의 프로젝트 기념 배지를 제공한다.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는 뉴질랜드 출신의 참여작가인 스콧 이디(Scott Eady)가 이번 광주비엔날레때 선보일 '시민 참여형' 설치 작품. 고장나 버려진 자전거 100대를 소품으로 활용, 수리한 뒤 전시장을 찾는 관

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활용 자전거(50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중고 자전거를 분해해 쓸만한 부품은 재활용하고 부족한 부품을 새로 끼워넣은 다음 페인트칠을 해 새 자전거로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지역 자전거 동호회나 공동체 등이 함께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전거는 극히 적어 이대러낸 작품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단은 자발적 기증자를 찾는 한편, 지역 자전거 동호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자전거 수집에 나서고 있다. 기증 문의 062-608-4337. /김지을기자 dok2000@



스콧 이디가 뉴질랜드 도우스미술관에서 선보였던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 사진. <뉴질랜드 도우스 미술관 제공>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마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크리마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